

이주홍 해방공간 소설 연구

- 이념 전환의 소설적 양상 -

이 준 형*

차 례

- | | |
|--------------------------------------|---------|
| I. 서론 | III. 결론 |
| II. 해방공간 소설에 나타난 이주홍
의 현실 대응방식 변화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이주홍이 해방 공간에서 발표한 세 편의 소설 속에서 작가의 이념 전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왕성한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쓴 「명암」, 「거문고」에서 드러나는 이념과 사회주의 문학단체에서 탈퇴하여 부산으로 내려온 뒤 발표한 「가족」 속에서 드러나는 이념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주홍은 이념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념의 전환 과정에서 발표한 세 편의 소설을 살펴봄으로서 이념 전환의 이유를 그의 작품 속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강릉원주대

이주홍이 해방 공간에서의 행적을 뚜렷이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세 편의 작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의 이념 전환의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해방 직후에는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작품을 발표하지만, 부산으로 내려온 뒤에는 가족 중심의 소설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명암」에서 「거문고」를 거쳐 「가족」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기동안 발표한 소설들이지만 사회주의 계열의 소설에서 과도기를 거쳐 가족중심주의의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이념 전환의 양상을 보여준다.

주제어 : 이주홍, 향파, 해방공간, 명암, 거문고, 가족, 이념 전환

I. 서론

향파 이주홍은 1945년 거창 검사국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해방이 되어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사회주의 문학단체에 가입한다. 출소 후 상경한 그는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간부직을 맡아 왕성한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명암」, 「거문고」 그리고 「가족」 등의 소설을 발표한다. 1947년 대부분의 좌익 문인들이 월북을 감행할 때 이주홍은 문학적 동지였던 권환과 함께 고향인 부산으로 낙향한 뒤 사회주의 문학단체와는 손을 끊고 문학운동보다는 창작에 전념한다. 귀향한 다음해인 1948년 이주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공론』에 3회까지 연재하다 중단한 장편 소설 「가족」을 『대중일보』에 다시 연재하여 완성한다.

이주홍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운동에 전념하다가 이념을 포기하고 낙향하였고 사회주의자로서의 박해도 심하게 겪지 않았다. 그러나 이주홍은 이러한 이념의 변화와 낙향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힌 바 없으며 또 그 시기의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글도 남긴 바 없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

홍이 왜 이념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짐작도 불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해방 직후 이주홍의 내면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명암」에서 「거문고」를 거쳐 「가족」에 이르는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일 것이다. 본고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이주홍이 해방 이후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귀향한 후 이념을 포기하는 예민한 시기에 쓰여진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가 전향을 하게 되는 내면의 모습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 사회가 격변기를 맞이하였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새롭게 부상하는 지배적 이념인 진보적 이념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잔여적 이념, 즉 전통적 질서와의 완강한 온존이다. 이 두 가지 가치지향은 혼란기의 사회에 공존하며, 대립과 갈등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방기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진보 혹은 변혁 이념이라는 좌익 이념의 실현과 좌익 이념을 거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익 이념 지향이라는 대결구도로 드러난다.¹⁾ 작가들 역시 자신의 이념을 표출하였다. 그 방법으로 자신들의 작품에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낸다.

해방공간에서 이주홍은 사회주의 문학단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이념적 변화를 보여주면서 부산으로 내려와 전혀 다른 모습의 작품들을 발표한다.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은 작가의 의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잘 드러낸다. 가장 먼저 발표된 「명암」은 작가가 자신이 과거 일제강점기 동안 경험했던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며, 「거문고」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함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어떻게 타협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산으로 내려간 이후에 발표한 「가족」은 이주

1) 이병준, 『해방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7, 29쪽.

홍이 사회주의 단체를 탈퇴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뒤 가장 먼저 쓴 작품으로 가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세 작품에 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²⁾

II. 해방공간 소설에 나타난 이주홍의 현실 대응방식 변화

1. 일제강점기 영어 체험의 소설화 : 「명암」

「명암」은 『인민』 1946년 신년호에 실려 있는 단편소설이다. 이후 약간의 개작을 한 후에 「미명」이라는 제목으로 1946년 『조춘』에 실리게 된다. 1945년 봄 일제의 감시 아래 있었던 이주홍은 거창 검사국에 송치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며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5일에 유치장에 풀려나게 되는데 이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이 「명암」이다. 이 작품은 사상범들의 비참한 유치장 생활과 일제의 만행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독립에 대한 신념을 보여준다.

ㅅ은 鄭앞에다 두 다리를 걷어내 보였다.

별갑 문이처럼 푸룽푸룽 멎든 자죽 우옌 군데군데 검은 피가 배아 있었다.

순간 鄭의 손발도 떨렸다.

가볍게 파동되고 있는 ㅅ의 그 구레나루를 쳐다보기가 몹시 괴로울 지경이었다.³⁾

-
- 2)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이주홍의 초기 소설들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해방공간에 발표된 이들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는 이주홍이 해방 이후에는 거의 부산에서만 활동을 해 온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해방공간에 발표된 작품 중에는 김윤식의 해방 직후 이주홍의 삶과 관련하여 논의된 「명암」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박과 정은 사상범으로 잡혀와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항상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등계의 호출을 받은 박을 보며 정은 혹시 석방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곧 취조를 계속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의 두려운 생각처럼 두 시간이 지난 뒤 돌아온 박은 호된 취조에 의해서 상처투성이로 돌아온다.

사상범으로 잡혀 온 이들은 모진 취조를 통해 전향 선언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검거된 이들은 사상범이 아닌 동시에 잡혀 온 이유조차 모르는 인물들이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은 곧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한편 이유조차 모르는 취조를 당해왔기에 앞으로도 모진 취조를 계속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모진 취조를 당한 뒤 돌아온 박의 모습에서 사상범들에 대한 취조의 정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건어올린 두 다리에는 멍든 자국과 함께 검은 피 자국이 배어 있었으며, 취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가볍게 파동되고 있던 구렛나루의 모습을 보는 정은 큰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만일 로서아가 일본과 싸움을 하게 된다면 네들은 몹시 좋아하겠지?”

낮에 차를 취조실로 끄러다 논 고등계 주임은 아무러치도 않은 표정으로 차에게 이렇게 물었든 것이다. <중략>

“그것 봐. 말을 앓는 걸 보면 너는 로서아를 위해서……”

“아-니 이진 취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초장부터 사람을 놀려잡을 작정이십니까. 사건유무만 물어줘요!”

사실 차는 주의자도 아니요 이 사건에 직접 관계될 만한 아모 근거도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그들과 친교가 있다고 해서 처넣어 둔 데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⁴⁾

3) 이주홍, 「명암」, (류종렬 편, 『이주홍 소설 전집 2』, 세종출판사, 2006), 93쪽. 이후 소설 인용은 류종렬 편, 『이주홍 소설 전집 2』의 쪽수로 밝힘.

일제 강점기 말, 일제는 천황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를 철저히 탄압하면서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사상범 보호관찰법⁵⁾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었다. 사상범 보호관찰법에 의해 잡혀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 사상범들은 끔찍한 취조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박은 사회주의자도 아니며, 사건에 관계가 될 근거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고, 고등계 주임으로부터 취조를 당하게 된다.

사상범으로 잡혀온 이들은 취조를 통해 전향을 강요받게 된다. 1941년 이후 사상통일에 대한 억압이 더욱 강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주홍이 검사국에 간 일제 강점기 말기는 일제의 사상 통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기에 이 때 유치장에서 본 취조의 모습과 전향에 대한 강요는 그 어느 시기보다 끔찍하였을 것이다. 사상범으로 잡혀 간 이들은 설사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인정한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부정해야했고, 이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이들은 완전히 용서되었고 풀려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다.

“만일 일본이 진다면 말이지 우리 조선도 독립 한번 해 보게 될까.”

“글세.”

“일본이 질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비행기 한 대 푹푹히 못 바쁘리

4) 97쪽.

5) 1936년 11월에 발포된 이 법안은 사상범을 간접적 시찰조사 아래 그 사상개조에 관해 적극적으로 그들을 선도하고 취직 알선하는 것과 이들이 다른 사상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1937년 일어난 중·일 전쟁으로 인해 사상 통일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압력을 가하게 된다. 중국과의 교전상태가 길어지고, 1941년 미국과의 외교 위기가 고조되자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 사상범은 일본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서 일본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서양문화를 버려야 하며, 전 세계를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해방하는 다른 일본인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등장하게 된다. 리차드 H. 미첼, 『일제의 사상통제』, 일지사, 1982, 참고.

대는 형편에 씬을 끌기만 하면 뭘 해 글세.”

그로 해서는 이것은 근거있는 상식이었다.⁶⁾

간수가 넣어준 신문 한 조각에서 박과 정이 읽은 기사는 일본의 비행기에 대한 기사였다. 비행기들이 전장까지 날지 못하고 대개 엉뚱한 지점에 떨어지거나, 연료통이 새어 날지도 못하는 것뿐이라는 기사를 읽은 박과 정은 한국이 독립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감방 전체에는 일본의 패망을 갈망하는 외침으로 가득차게 되지만 이 소망은 감추어져야만 할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⁷⁾ 유치장에서 지독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독립에 대한 신념만은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감추고 있기는 하지만 힘든 고통 속에서 전쟁에서 패한 일본에게서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제의 만행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만행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박과 정이라는 두 사상범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유치장에 갇혀있는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홍이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류종렬이 정리한 이주홍의 연보⁸⁾에 따르면 이주홍은 1945년 봄에 피검되어 고향 친구와 함께 거창 검사국에 수감되었다가 해방을 한 다음 날인 8월 16일에 출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1945년 봄에서 8월 15일까지 유치장에 있었다는 것과 그 곳이 거창 검사국이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어떠한 이유로 검거되었는가는 드러나지 않는다.⁹⁾ 이는 일제의 사상범 보호관찰법이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짐과 관

6) 95쪽.

7) 작가와 사회 엮음, 조명기 저, 「해방기의 부산·경남지역 소설」, 『작가와 사회』 20호, 2005, 26쪽.

8)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 출판부, 2004, 참고.

런이 있다. 검거와 예심, 재판의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안 검거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에 처해지는 일도 기소되는 일도 없었다. 즉, 최후까지 자신의 사상을 굽히지 않는 이들만을 기소하면 되었다. 하지만 검거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게 사상에 빠져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쉽게 전향 선언을 하였다. 그렇게 전향선언을 한 이들에게는 기소유예 혹은 유보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기에 자신이 어떠한 사건으로 검거되었는가를 모르는 이들 중 깊게 사상에 빠져있지 않았던 이들은 전향 선언을 통해 쉽게 풀려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잡혀온 이유를 모르는 채 풀려났던 것이다. 이주홍 역시 이러한 경우였다면 자신 역시 어떠한 사건을 통해 검거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석달 동안 이 유치장에 가쳐 있는 사상범 일행이 앞으로 자기네들의 사건 전개 여하를 똑똑히 추측해낼 사람이라곤 사실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어느 방 동지 할 것 없이 열흘이 넘도록 한번도 불려나가는 법이 없었다.

위세 좋게 유치장 앞을 드나들든 고등게 주임도 요새 와서는 이쪽 변소를 사용하는 일조차 없어졌다.¹⁰⁾

그들이 여기로 피검되어 온 것은 논들의 못자리가 채 푸르지도 않았던 5월 중순께의 일이었다. 그러저럭 유치장 생활도 석 달이 지내갔다. 그러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추측하는 사람이 없었다. 첫째 무엇 때문에 붙들려 와야 했는지 자신들부텀이 이유를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모두 요주의 인물들이었다. 무리해서 이유를 찾는다면 그 점뿐이었다. 그러나 요주의 인물이라고만 해서 잡아들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일이었다. <중략> 그

9) 김윤식, 「불시착한 어떤 고대인의 내면 풍경」, 『문학사의 새 영역』, 강, 2007, 225쪽.

10) 88쪽.

러는데 그들은 붙들려 들어오고 말았다.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그게 기가 막힌다는 것이다.(『조춘』, 세기문화사, 1946, 311~312쪽)¹¹⁾

위의 두 인용문은 같은 작품으로 아래의 인용문이 「명암」을 다소 개작하여 「미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두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상범들이 잡혀 간 시기가 이주홍이 친구들과 함께 잡혀간 시기와 같은 봄으로 나타난다. 이주홍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담아내고 있기에 시기까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방 이후에 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검거된 원인이 되는 사건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명」은 「명암」이 발표된 이후 개작된 작품이기에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자신들이 잡혀 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단지 요주의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잡아들이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검거된 이들이 사상범으로 감시 하에 있던 인물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잡혀온 정확한 사건이 무엇인지는 검거된 이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담아내는 작품 속에서, 또한 해방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모를 말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이 작품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이주홍 역시 자신의 수감이 해방운동 때문인지 사회주의 때문인지 정확한 사건의 전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명암」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면서 일제 강점기 말에 사상범으로 검거된 사회주의자들의 유치장에서의 생활, 모진 취조와 고문 그리고 신념을 포기하지 강인한 모습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이주홍이 해방 이후 최초로 창작한 이 작품에서 일제강점기에 사상범으로 검거되었다 해방과 함께 풀려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념 실천에 대한 분명한 자신

11) 김윤식, 같은 책, 225~226쪽에서 재인용.

의 내면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명암」은 이주홍의 소설을 연구하고 해방 이후 그의 정신적 궤적을 해명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는 작품으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 해방공간의 혼란과 이념과 현실의 갈등 : 「거문고」

해방공간은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리란 희망과는 다르게 어둡게만 점철된다. 식민지 잔재와 봉건적 요소는 해소되지 못하고 혼란한 역사에 함께 존재하게 되며,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심화되어 현실은 더욱 어둡고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해방공간의 가정생활의 일상사를 부부싸움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연극 활동을 통한 현실참여와 해방공간의 혼란상이 은밀히 드러나고 있다.¹²⁾

“오늘 바쁜 일 있소, 이거 제발 좀 봐요.”

“내시켰다고 했으니 어서 돈 내요.”

“그래, 달라는 데로 줄테니 넌이라도 모레라도 오면 되잖우.”

원 전신에 벌레라도 기어다는 것처럼 발짝이 되어 강현은 훌쩍훌쩍 뛰었다.

“가는 년이 널 모레가 어디 있수. 지금까지 있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 하우. 어서 내 봐요.”

어디서 온 힘이었는지 덜덜 떨리던 주먹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번개 같이 안해의 귀밑에 가서 소리를 냈다.

뒤미처 또 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날 죽여. 날 죽여.”¹³⁾

이 작품의 주인공인 강현은 본부인에 대한 질투로 항상 신경질을 부리는 아내와 다툼이 잦다. 아내는 남편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은 채 본부

12) 류종렬, 같은 책, 109쪽.

13) 109쪽.

인과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남편에게 매달리지만, 시민대회 준비로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던 남편은 그러한 아내에게 화를 내다가 결국은 주먹을 휘두르게 된다. 이후 강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극단으로 향하는데 이 극단은 시민대회에 사용할 깃발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극단이 좌익 활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강현은 연극 연출을 하는 극작가로 등장하는데 이는 이주홍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39년에 잡지 『영화·연극』의 편집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전원회상곡」(1940), 「장미의 풍속」(1943), 「춘향」(1944)의 세 편의 시나리오를 쓰고 1943년에는 희곡 「여명」을 가명으로 발표하여 『매일신보』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문고」를 쓴 이듬 해에 그는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탈퇴함으로서 사회주의 문학단체와는 손을 끊고 부산으로 내려가 중학교 교사를 하며 학생극 운동에 몰두하게 된다.

시나리오를 쓰던 작가가 연출가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소설을 쓴 뒤 자신이 가담하고 있던 단체에서 탈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하던 소설가가 아닌 연극의 연출가로서 혹은 아동문학가로의 변모는 분명 해방 이후의 심경의 변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주홍의 해방 공간에서의 사상의 변모는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명암」이 일제의 만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거문고」는 현실 참여 의식과 해방 이후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혹시나 하고 가방을 다른 집에 맡겨놓고 왔기에 마련이지 옥남이를 이 세상 단 하나의 동무하고 생각해 온 것마저 후회되었다. 자기 남편이 서울시 무슨 위원이 되었다는 등 장래에 정부가 서면 국회에 참석할 대 의원이 된다는 등 흥미도 없는 허풍만 쳐대고는 자기에겐 아모런 묻는 말도 없었다. <중략> 옥남이가 가고 난 뒤 선영은 이불 속에서 울었다. 평소엔 자기의 사정을 승허물없이 잘 이해해주던 옥남이었던만 이날은

만 사람같이 무심했다.¹⁴⁾

남편 강현과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는 평소 자신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던 옥남을 찾아간다. 단 하나뿐인 친구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옥남이었지만, 옥남은 자신의 남편이 정부가 서면 국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된다는 허풍만을 칠 뿐 갑자기 찾아 온 아내에게는 아무 것도 묻지 않았으며 관심조차 없다. 결국 다음날 아내는 그 집에서 나와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던 중에 시민대회의 행렬을 만나게 된다.

이주홍이 속해 있던 조선문학가동맹은 1946년 2월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에 동참하게 된다. 이 단체는 좌익계 29개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비롯한 전우익 정당사회단체와 중도파 정당들이 연합해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자, 반탁세력에 대항하고 합법적 신탁 지지의 필요성을 느껴 결성되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참가한 시민대회 역시 아직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에 반대하는 시위였기에 이주홍이 속해 있던 단체의 성격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결치는 합창소리와 함께 행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만세소리는 장안을 흔들었다.

선영의 머리 속엔 두 번째 남편의 환영이 떴다 깨졌다.

선영은 두주먹이 저절로 쥐여지며 자기도 행렬속으로 뛰어들고만 싶었다.

혹시 남편도 넘어지나 않았을까 생각하면 목구멍이 껌껌해져 금방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중략>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혹시 남편이 붕대를 감고 들어누어 있거나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측에서 문을 잡는 손이 가볍게 떨려졌다.¹⁵⁾

14) 122쪽.

15) 124~125쪽.

시민대회가 시작되자 행렬이 길게 늘어서서 이동하면서 혁명가를 부르고 트럭에서는 빠라를 뿌리고 행렬을 향해 돌맹이들이 날아온다. 이 작품에서 시민대회는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다.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강현이 시민대회 참가준비로 바빴기 때문이며,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역시 위협해 보이는 시민대회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참가한 남편이 걱정 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시민대회는 우익과 중도와 정당들의 세력에 반대하는 집회이며, 이 집회는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인공인 강현은 아내에 대한 관심마저도 뒤로 미룬 채 이 집회에 참가하지만, 아내는 이러한 집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집회를 하는 도중에 다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다쳤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극단을 찾아가게 된다. 이러한 아내에 의해 남편과 아내가 화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이주홍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타협의 방법으로 정치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내’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이 작품을 쓸 때까지 이주홍은 사회주의 문학단체에 속해 있었으며, 그 속에서 단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명암」과 함께 사회주의 문학단체에 속해있던 시기의 작품이다. 하지만 「명암」이 이주홍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에 관하여 쓴 것이었다면, 「거문고」는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작품이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쓴 후 이주홍은 사회주의 문학단체에서 탈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연극과 아동문학에 몰두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작품을 쓰게 된다. 「거문고」는 해방공간에서 쓴 세 편의 작품 중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시기 이주홍의 행적과 이념적 변화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 대한 보다 다양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이념의 포기와 가족으로의 회귀 : 「가족」

「가족」은 중편소설로 전부 54회의 분량으로 연재되고 완결되었다. 앞서 다룬 두 작품 「명암」과 「거문고」는 사회주의 문학단체에 가담해 있으면서 쓴 작품이기에 사회주의 계열의 색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비록 1회에서 3회까지의 분량이 앞의 두 작품과 같은 시기에 연재되기는 했지만 가담해 있던 단체에서 탈퇴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썼기에 사회주의 계열의 색채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은 과부인 어머니와 무능력한 아들, 그리고 과거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주된 주제로 드러나지만 그 배경에는 가뭄이 들어 궁핍하게 살아가는 해방 이후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걱정이 생겼다.

이것은 물론 손과부 한 사람만의 걱정은 아니었이만 금년 들어 병적이 서말지기 더 생겨 있는 터임에도 불구하고 날은 몹시 가뭄이 오월이다가고 유월이 접어들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중략>

「그래도 삼복이 아버지네 논은 수분끼라도 있구만 그래」

손과부도 남자 못잔케 아랫두리를 둥둥 거져가지고는 여성 특유한 질투 감정으로 남의 논의 물끼부터 살핀다.

콩잎은 죄다 시들어 풀 삶기는 냄새가 등천했다.¹⁶⁾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친정으로 내쫓고,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아들의 표정도 신경쓰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정신적인 율화에 대한 강렬한 반향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하기에만 여념이 없던 손과부에게도 가뭄은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이다. 손과부만의 걱정이 아닌 마을의 모든 사람의 걱정거리였던 것이다. 가뭄에 대한 걱정이 너무 깊었기에 다시 돌아온 며느리를 구박하다던가 무능력한 아들을 염탐한다던가 하는 마

16) p.46.

음의 여유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깊은 걱정은 결국 물이 고여있는 남의 눈에 구멍을 내어 자신의 눈으로 그 물이 흘러들어오게 하기까지 이른다. 하지만 이는 곧 들통이 나 손과부네 머슴은 상대 논 주인의 머슴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게 된다.

아무 곳이나 매한가지지만 이 마을에도 일께나 하는 놈은 만주로 일본으로 다 달아나 버리고 일꾼이 부족하다.

삼시 먹여주고 육십 전을 줄래도 일꾼이라곤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었다.¹⁷⁾

가뭄으로 인해 눈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궁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은 만주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가뭄으로 인해 눈은 매말라가지만 일을 할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어갔으며, 키우는 소마저도 더위를 먹고 죽어가는 마을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앞서 발표한 『명암』과 『거문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문학단체에서 탈퇴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뒤 가장 먼저 발표한 『가족』에서는 감옥에서의 고통스러운 모습, 정부에 대한 투쟁을 하는 모습 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주홍이 부산으로 내려온 뒤에 쓴 이 작품에는 가난한 민중들의 모습이 보인다. 비참하기만 한 민중들의 모습이 아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보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비참하고 가족을 느낄 수 없었던 이전의 작품과는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는 동안에 뜻밖에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난 들려왔다.

어제 돌아왔다는 읍내 이발소 아이의 편으로 칠성이가 내일 일본으로

17) 49쪽.

부터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손과부는 그날 하룻밤을 온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중략>

자동차가 다힐 무렵해서 손과부는 아이를 업고 며느리와 함께 읍내로 마중갔다.

해질 무렵해서 칠성이는 훨씬 건강해진 몸으로 돌아왔다.¹⁸⁾

갑자기 아들이 일본으로 떠난 것을 계기로 서로 기댔 곳이 없어진 손과부와 며느리는 부쩍 서로에게 의지하며 기대게 된다.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해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손자까지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이후에 아들이 일본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돌아오는 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건강하게 태어난 손자와 건강해진 몸으로 돌아온 아들은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아들이 일본으로 떠나면서 둘만 남게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갈등이 차츰 해소되기 시작하였고, 손자가 태어남으로 인해 둘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모습을 보인다. 손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기에 며느리의 불만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손자 앞에서는 모두 중단되는 것이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손과부는 건강해져서 돌아온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 그에 대한 갈등은 모두 풀어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이념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이후에 이주홍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은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며, 소설 전반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던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결말 부분에서 완전히 해소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를 포기한 후에 가족주의로 변화하면서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의 상황만을 그리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게 된 것이

18) 85~86쪽.

다.

이주홍이 이념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것은 그 당시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47년에 일어난 사회주의 계열을 억압하는 정치 상황이 그것이다. 1947년 1월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주의 계열 예술인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시작하였다. 민중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 이외 정치나 기타 선전을 일삼아 정치교란을 양성하는 자는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여 엄형에 처한다는 ‘홍행취체에 관한 고시’가 수도경찰청장이자 한성극장협회 명예회장인 장택상에 의해 발표 되었다.¹⁹⁾ 이는 사회주의 계열의 예술인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기에 미군정에 항의문을 전달하였으나 묵살당하였고, ‘문화옹호 남조선 문화예술가 총궐기대회’가 열렸지만 이미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사회주의 문학단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이주홍이 단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만을 이유로 가담하고 있던 단체와 손을 끊고 부산으로 내려온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이주홍의 심경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족」은 이주홍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후 가장 먼저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이주홍이 해방 공간에서 발표한 작품을 바탕으로 이주홍의 이념 전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이주홍의 모습에서 중요한 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9)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 1940년대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4, 69~70쪽. 참고.

먼저, 「명암」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창 검사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드러나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수감되었는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주홍은 전주사건 이후 일제의 요시찰 인물로 감시받고 있었으며, 일제의 사상 통제가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수감 생활을 하였다. 해방 이후에 발표한 소설이 자신의 감옥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졌으며, 잡혀 가던 시기와 수감 생활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간 이유에 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둘째, 「거문고」에서는 극작가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설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이후 이주홍의 행적은 다른 작가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해방 공간에서 이주홍과 행적을 같이 한 작가들 중 평양중심주의의 작가들은 1946년에, 서울 중심주의의 작가들은 1947년에 평양으로 월북을 한다. 하지만 이주홍은 월북을 하지도 않았으며, 서울에 그냥 머무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부산으로 내려와 동래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소설이 아닌 아동극과 아동소설을 쓰면서 아동문학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문고」가 사회주의 문학단체에서 속해있던 시기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기에 이주홍의 이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작품이다.

셋째, 사회주의 문학단체에서 탈퇴한 뒤 부산으로 내려와 아동문학에 몰두한 그가 유일하게 쓴 「가족」에서 볼 수 있는 가족 중심주의로의 변모된 모습이다. 「명암」과 「거문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가뭄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가족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행복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등 이전 소설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해방 공간의 길지 않은 기간 속에서 이주홍의 모습을 뚜렷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 문학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으나 다른 작가들이 월북을 한 것에 반해 이주홍은 지역문단이라 할 수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 소설이 아닌 아동문학에 몰

두한 것은 기이한 행적이라 할 수 있다. 이주홍의 뚜렷한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방 공간에서 발표한 소설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류종렬 엮음, 이주홍 지음, 『이주홍 소설 전집 2』, 세종출판사, 2006.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 194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2004.
- 김윤식, 『문학사의 새 영역』, 강, 2007.
-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 출판부, 2004.
- 송기섭, 『해방기소설의 반영의식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이병순, 『해방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7.
- 작가와 사회 엮음, 조명기 저, 「해방기의 부산·경남지역 소설」, 『작가와 사회』 20호, 2005, 16~29쪽.
- 전홍남, 『해방기 소설의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1999.
- 리차드 H. 미첼, 『일제의 사상통제』, 일지사, 1982.

<Abstract>

Lee, Ju-Hong Liberation Space Novel Research

- Novel Aspect of Ideological Changes -

Lee, Jun-Hyeo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the principle changes of the author is revealed in the three novels Lee, Ju-Hong published in the Liberation Space. The ideologies revealed in “Contrast” and “The Korean Harp (Lyre)” while Lee wrote as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Socialism Movement by enrolling in the Chosun Literature Alliance and the ideologies revealed in “Family” which Lee punished after he moved to Busan after withdrawing from the Socialist Literature Group were completely different. Lee, Ju-Hong shows a sudden change in his ideologies but the reason is not apparent. This thesis plans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changing the author’s ideologies through examining the three novels he published during the ideologies transitional period.

Although Lee, Ju-Hong does not clearly show his tracks in the Liberation Space, through the three pieces of work, it is possible to see the transition of his ideological aspects a little bit. Right after the liberation, he was active by subscribing the to the Socialist Group and published works of socialist related pieces but after moving to Busan, he shows publishing works related to family-oriented pieces. From the publication of “Contrast” to “The Korean Harp (Lyre)” to the

“Family,” it was only a short period of time between the publication dates but it shows the transition of his ideological aspects by publishing a family-centered novel after a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Socialist related novels.

Key Words : Lee, Ju-Hong, Liberation Space, Contrast, Korean Harp (Lyre), Family, Ideological Transition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